



# 정교회주보

제2513호

2025.02.23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심판 주일(금육 주일)**  
한국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주일  
성 폴리카르포스 주교순교자  
(제2조 • 조과 복음 2)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 주교순교자(순교사제)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금육 주일 시가송 ..... 220
- 사도경 : 고린토 전 8,8~9,2 .....  
(봉) 432
- 복음경 : 마태오 25,31~46 ... 13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사진 설명

## 축복용 십자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두 가지 기본 축이다.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며, 십자가는 부활을 예고한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다. 십자가의 중요성은 이런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축복용 십자가(사진)는 제단 중앙에 있는 복음경 오른편에 있다. 보통 금은 도금이나 나무로 만들며, 한쪽 면에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4명의 복음저자가, 다른 한쪽 면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4명의 예언자가 자리한다.

교회에서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주교는 축복용 십자가를 성찬예배 등에서 신자들을 축복할 때 사용함으로써 그 권위를 나타낸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와 전통을 담고 있는 중요한 행위이다. 십자가를 통한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이 신자들에게 전달되며, 영혼을 정화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 우리 신앙 안에서의 연합, 우리나라 안에서의 연합 (요한 17,9-24)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신앙과 직제' 실행위원회 설교, 2025.1.23.

주님 안에서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서기 325년 5월 20일 비티니아의 니케아에서 소집된 제1차 세계 공의회(1700주년을 기념합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의회 제도는 서기 49년에 예루살렘(사도행전 15,1-29)에서 열린 사도들의 공의회를 본보기로 삼아 이후에 지역 공의회와 세계 공의회를 통해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공의회 제도는 동방과 서방의 하나 되고 분리되지 않은 교회를 보호하며, 천 년 동안 교회를 독재나 무질서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행정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1차 세계 공의회가 소집된 주요 이유와 공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안건은 바로 아리우스의 이단적 가르침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3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혹독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박해는 중단되었고, 교회는 지하에서 조금씩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년 후, 외부의 적보다 더 큰 내부의 적이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을 큰 시련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위협에 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통성이 위협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들의 육체가 아닌 영혼의 구원이 위협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의회를 소집하여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을 확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올바른 신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성부의 피조물로 간주했습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맞는 주장이었다면, 하느님과 인간의 연합, 즉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인간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느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연합의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반신(半神)이나 뛰어난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가 하느님이신 것과 같은 의미로 하느님이십니다.

신학적 용어로 “신화”(神化)는 인간이 하느님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제1차 세계 공의회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한 대아타나시오스 성인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람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완전한 하느님께서 육신을 취하시어 완전한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이단적 가르침이 지배적이었다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러하듯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악마, 죄,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 공의회에서 결정되어 ‘신앙의 신조’의 첫 7개 조항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의 교리는 우리의 삶과 무관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3면에서 계속)



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은 영적 삶에서도 잘못된 길을 갈 것이 확실합니다. 교회는 초창기부터 교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여 성령의 인도 아래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였고,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정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제1차 세계 공의회가 소집되기 전 비잔틴 제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의 일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리우스파와 반(反)아리우스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신자들을 죄악된 분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1차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게세마니에서 성부 아버지께 드린 기도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에 신자들이 충실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2)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신자들의 일치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자들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의 잘못된 교리가 자리 잡게 되면,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인간의 영적 죽음을 초래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신앙의 일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 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한에 계십니다.”(에페소 4,3-6)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1차 세계 공의회 1700주년은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에페소 4,15)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단순히 구원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분열된 그리스도교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신성한 기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증언하는 가장 힘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일치와 사랑을 가장 힘있게 가르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정치적 위기로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진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우리나라의 연합이라는 중요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와 사랑의 정신으로 노력하여 분열을 피하고 하나 되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에 일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 **참회의 만과**

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3월 2일)에는 오후에 참회의 만과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합시다.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 바랍니다.

■ **이번 주간 금식 안내**

이번 주간에는 육류를 금하고, 생선,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축일 달력을 참고하세요.

■ **주일학교 진급 및**

**새 학년 시작을 위한 기도식**

다음 주일(3월 2일), 성찬예배 후에 기도식이 거행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새 학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정교회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한국 정교회의 기념일이었던 지난 17일(월)에 서울 성당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되었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껏 한국 선교를 위해 봉사하신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신자들에게 권면했고, 또한 우리 각자가 지닌 선교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17일 다음에 오는 첫 주일은 한국 선교를 위해 봉사했고, 지금도 봉사하는 모든 성직자들, 협력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성찬예배 다음에 안식한 선교사들을 위한 추도식을 거행합니다.

■ **대교구 겨울 수련회를 마치며**

춘천에서 지난 11일-14일에 열린 학생부(초등-고등) 겨울 수련회에 서울, 인천, 전주, 울산 성당에서 참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라는 중심 주제로 예배와 기도, 성서공부, 대화와 토론이 있었고, 아이스 스케이팅, 눈사람 만들기, 실내 오락 등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4일-16일에 있었던 신데즈모스 수련회는 서울, 인천, 울산 청년들의 많은 참가 속에 예배와 기도, 가평 수도원 방문, 중심 주제 토론, 친교 및 오락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과 수련회 운영에 큰 도움을 주신 스태프 및 주방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느 초보 수도자가 시소이스 사부에게 자신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언제나 실패한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지혜로운 사부가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혀의 문을 열어두는 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음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